

향토문예교실교재

차례

I. 향토 문예교실 수강안내

II. 문학개론

1. 문학의 본질과 기능
2. 주요 문학 장르 개관

III. 수필론

1. 수필의 이해
2. 수필의 감상

IV. 시론

1. 한국 현대문학사
2. 시창작론

사단
법인 이 천 문 화 원
이 천 설 봉 문 학 회

향토문예교실교재

차례

I. 향토 문예교실 수강안내

II. 문학개론

1. 문학의 본질과 기능
2. 주요 문학 장르 개관

III. 수필론

1. 수필의 이해
2. 수필의 감상

IV. 시론

1. 한국 현대문학사
2. 시창작론

사단
법인 이 천 문 화 원
이 천 설 봉 문 학 회

○ '93 『향토문예교실』 제1기 수강안내

설봉문화회에서는 향토문학의 창달과 건전한 문화의 정착이라는 기치 아래 지역내에 문학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향토문예교실』을 개설 운영하고자 하니 관심있는 지역주민은 누구나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최 : 이천문화원 · 이천설봉문화회

2. 일 시 : 제1기 4월 22~23부터 매주 목, 금요일

오후 6시 30분~8시 30분까지 5주간

제2기 11月中

3. 장소 및 강의시간 : 군민회관 소회의실(오후 6시 30분~8시 30분)

4. 대 상 : 주부, 근로자 및 문학에 관심있는 지역내 거주자

5. 참가비 : 10,000원

6. 교육과정 및 강사(주당 4시간, 총 5주 20시간)

1주 : 오리엔테이션 30분 한국문학개설(최영규-2시간) 한국문학사(신배섭-2시간)	2주 : 시창작이론(신배섭-2시간) 시창작실기(김학성-2시간)
3주 : 수필 및 동화 창작이론(최영규-2시간) 수필 및 동화 창작실기(서상혁-2시간)	4주 : 시창작실기(김학성, 성지월-2시간) 수필 및 동화 창작실기(서상혁, 장인석-2시간)
5주 : 소설창작이론(김수년-2시간)	소설창작실기(김수년-2시간)

7. 특 전

강의내용은 교재를 바탕으로 충실한 교육이 되도록 합니다.

수료자 전원에게는 수료증교부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설봉문화회 준회원으로 인정합니다.

8. 접 수 : 1993년 4월 15일까지 이천문화원으로 접수바람.

9. 문의처 : 0336-635-2316

여 백

1. 문학의 본질과 기능

(1) 문학의 본질

① 특수하고 가치있는 체험

문학은 특수하면서도 가치 있는 체험(體驗)을 말이나 글로써 표현한 예술의 한 갈래로서, 창조된 삶의 질서다.

문학은 특수한 체험을 제재(題材)로 삼아 일상적인 관습과 타성을 깨뜨린다. 밤에는 잠자고 아침이면 일어나며, 하루 세끼 식사를 하는 것과 같은 일상의 생활은 우리를 권태롭게 만든다. 이같이 우리를 권태롭게 만드는 일상의 타성을 깨뜨릴 특수한 체험을 문학은 제재로 택한다. 그러므로 문학은 일상의 경험(經驗)에서 출발하지만 일상의 경험에 반역(反逆)한다. “어제와 같음.”이라 쓰고 잠들 수 밖에 없었다는 어느 학생의 일기는 일상성(日商性)에 도전하지 못하고 그 속에 묻혀버린 무기력한 삶을 보여줄 뿐이다.

특수한 체험이란 어떤 사물이나 현상 자체가 특수한 것일 수도 있고, 사물이나 현상은 특수하지 않더라도 상상의 세계에서 특수화한 것일 수도 있다. 하근찬(河瑾燦)의 단편 소설 ‘수난 이대(受難二代)’는 제2차 세계 대전과 6·25동란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사건과 그 때문에 팔과 다리를 잃은 아버지와 아들의 특수한 상황을 제재로 택하였다. 반면에 박두진(朴斗鎭)의 시 ‘해’는 구약 성서(舊約聖書) 이사야서를 모태로 한 종교적 상상의 세계에서 특수화한 체험의 세계를 제재로 택하여 민족사의 내일을 노래했다.

문학의 체험이 가치있다는 말은 그것이 성스럽고 숭고한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쓸모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뜻한다. 이 점에 관하여는 문학의 기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② 말과 글로 표현되는 예술

문학은 말이나 글을 매재(媒材)로 하여 표현된다. 음악이 소리틀, 미술이 선(線)과 색채(色彩)를 매재로 하는 것과 구별된다. 음악과 미술의 매재인 소리와 선과 색채가 자연 상태에서 취택(取擇)되는 것임에 비하여, 문학의 매재는

인간 사회에서 빚어진 문화적 산물이라는 점에서 문학은 여느 예술과 같지 않다 고들 말하기도 한다.

문학이 ‘표현(表現)’되었다는 말은, ‘형상화(形象化)’되어 나타난다는 뜻이다. ‘형상화’란, 체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습을 갖추어 나타낸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여 문학은 감각(感覺)과 정서(情緒)와 관념(觀念)과 삶의 진실을 직접 그대로 말하지 않고, 모습을 갖추어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문학을 ‘형상(形象)과 인식(認識)의 복합체(複合體)’라는 조금 어려운 말을 써서 정의 하기도 한다.

‘형상’은 모습을 갖추었음을 뜻하고, ‘인식’은 무엇을 안다는 말이다. 자연이 나 인간 사회의 모습과 그 진실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이 인식이라면, 문학의 인식은 이성(理性)으로 추리하여 아는 인식이 아니라, 증명하기는 어려우나 진실이 무엇인가를 아는 직관(直觀)에 따른 인식이다. 그러므로 문학 작품은 직접적으로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알려 주지 않고 직관적으로 인식한 바를 보여 준다. 특히 근대 문학은 ‘이야기하는 것(to tell)’이 아니라 ‘보여 주는 것(to show)’이라고 문학가들은 강조하여 말한다. 이를테면 김소월(金素月)의 시 ‘산유화(山有花)’는, 꽃이란 강이 아닌 산에서 핀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 “산에는 꽃피네.”하고 쓴 것이 아니다. 꽃이 피고 지는 현상을 통하여 대우주 공간에서 생성(生成), 소멸(消滅)하는 존재의 모습과 그 의미를 보여 주는 것이 서정시 ‘산유화’다. 또한, ‘홍부전’은 선(善)한 사람은 흥하고, 악한 사람은 망한다는 증세적인 인식 내용을 흥부와 놀부라는 인물을 통해 보여 주며, 전광용(全光鏞)의 소설 ‘꺼삐딴 리’는 세상의 형세에 재빨리 순응, 영합하는 교활한 인물이 출세한다는 인식의 내용을 보여 준다.

③ 창조된 삶의 질서와 구조

문학은 설명(說明), 주장(主張), 논증(論證)하지 않고 형상화하여 보여 주므로, 그에 합당한 긴장(緊張)된 질서와 구조(構造)를 필요로 한다. 이 구조를 떠받치는 것이 플롯(plot)이다. 플롯은 취택된 체험을 가려서 새로운 질서를 이루도록 재배열된 것이다. 이 때문에 문학은 현실에서 얻은 체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면서도 현실 그 자체는 아니다. 문학을 ‘창조된 삶의 질서’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학에 나타나는 현실과 그 체험은 벌써 플롯에 의하여 순서가 바뀌고, 상상력에 의하여 새로운 체험이 개입하는 과정에서 교정(矯正)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령 김정한(金廷漢)의 ‘수라도(修羅道)’에 등장하는 오봉 선생과 닮은 우국 지사는 많겠으나, 그와 똑같은 일생을 산 사람은 없는 것이다. 또 이광수(李光洙)의 ‘사랑’에 나오는 성자(聖者)다운 의사 안빈의 모델로 부산에 살고 있다는 실제 인물은 안빈과 유사할 뿐 그와 똑같은 인물일 수는 없다. 심훈(沈薰)의 ‘상록수(常綠樹)’에 나오는 박동혁과 지금 충남 아산(牙山)에 살고 있는 실제 인물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모든 문학 작품의 세계는 허구(虛構)이고, 거기에 내포(內包)된 진실(眞實)은 ‘허구의 진실(fictitious truth)’인 것이다.

삶의 현실과 문학 작품의 세계를 두고 예로부터 반영론(反映論)과 표현론(表現論)의 두 갈래 주장이 맞서 왔다. 반영론 곧 모방론(模倣論)은 문학 작품을 현실을 비추는 ‘거울’로 보는 입장이고, 표현론은 자신의 빛으로 현실을 밝혀 내는 ‘등불’로 본다.

(2) 문학의 기능

문학은 인간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특히 자연 과학과 물질 문명이 맹위를 떨치는 오늘날의 산업 기술 사회에서 문학을 비롯한 인문학(人文學)이란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인간을 동물로 보고 삶을 실용성과 편리함만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할 때 문학은 필요 없는 존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고, 삶을 삶답게 하는 데는 실용성과 편리함을 넘어서 기쁨, 아름다움, 성스러움 같은 어떤 정신적인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문학은 인류 역사와 함께 존속해 온 것이다.

문학은 굶주리는 장발장과 그의 조카들을 배불리는 데 속수무책이고, 억울하게 종신형을 받고 해상 감옥에 갇힌 몬테 크리스토를 석방할 실제적인 방도를 제시해 주지는 않는다. 앞에서 보았듯이 문학은 정보나 지식을 주는 일에도 성공적일 수가 없다. E. 헤밍웨이의 ‘노인(老人)과 바다’를 읽고 어부가 되려 하거나, ‘킬리만자로의 눈’에서 등산 안내를 받으려다가는 실패하기 십상이다. 남해안 섬 지방을 답사하기 위하여 김구(金綏)의 ‘화전별곡(花田別曲)’이나 윤선도(尹善道)의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를 읽거나, 휴전선 부근의 지형과 여행길을 알기 위하여 오영수(吳永壽)의 ‘한탄강(漢灘江)’과 강신재(康信載)의 ‘임진강의 민들레’를 읽는 것은 부질없는 짓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정보나 지식을

언으려면 관광 회사에서 만든 여행 안내 책자를 구해보는 것이 나을 것이다.

시인, 소설가, 극작가는 감기약 하나 제조할 줄 모르며, 홍수에 떠내려가는 돼지 하나 건져 낼 기력도 모자란다. 고아에게 옷 한 벌 사 입힐 돈이 아쉽고, 뒷골목의 불한당에게 의분을 느낄 뿐 속수무책이다.

그러나 C. 디킨스는 ‘크리스마스 캐럴’에서 고아를 구하고, 스토크 부인은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으로 흑인 노예의 해방에 이바지하였다.

세계 문학사는 문학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두 가지 견해를 내 걸고 논쟁을 전개해 왔다. 가르치고 쓰인다는 쪽과 단지 즐거움을 준다는 쪽이 맞서 왔고, 이를 절충한 견해도 있다.

동양의 유교 문화권에서 문학은 쓰임이나 교훈 쪽에 기울어 있었고, 서양의 경우는 두 견해가 논쟁을 벌여 왔다.

이를테면 공자와 플라톤은 교훈설(敎訓說), 아리스토텔레스는 쾌락설(快樂說)의 선구자다.

우리 문학에는 ‘황조가’를 비롯하여 민요, 향가, 고려 속요(高麗俗謠)는 물론, 황진이(黃眞伊), 윤선도(尹善道)의 시조 등 시가 문학과 <금오신화(金鰲新話)>, ‘운영전(雲英傳)’같은 소설이나 판소리 등에서는 쓰임이나 가르침에 맞서 개성(個性)의 자유를 표현한 문학을 볼 수 있으나, 그것은 온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국의 고전 문학에서도 상층 문학(上層文學)은 즐길의 기능을 억제하는 쪽으로 발전하여 왔고, 민요나 설화와 같은 기층문학(基層文學)에서는 오히려 즐길의 기능이 강조된 면도 있다. 그러다가 17~18세기 이후 근대성의 싹이 트고, 개화기를 거쳐 1917년 이광수(李光洙)의 ‘무정(無情)’에 와서 교훈성, 계몽성과 예술성 및 개성의 자유가 빚어내는 갈등을 거쳐 1920년대에 와서 비로소 즐길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고 개성을 마음껏 발휘하는 것을 신조로 하는 근대 문학이 즐길의 기능을 중요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근대 문학과 현대 문학은 경직된 도덕률과 사회 제도 및 금기(禁忌)체계에 도전하면서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현대 문학이 실용성과 도덕성, 교훈성의 문제를 완전히 저버리지 않는다. 오늘의 문단에서도 도덕이 무너진 사회, 굶주리는 인류, 꺾박받는 계층, 정치·경제·사회·문화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사회의 불의·부정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문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문학이 교훈적이어야 하느냐, 쾌락을 제공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논쟁은 어리석다. 이런 논쟁은, 문학이란 무엇인가는 논의하면서 문학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잊어버린 사람들과, 문학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주장하면서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잊고 있는 사람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대화함으로써 해소될 것이기 때 문이다.

문학 작품은 윤리, 도덕을 직설적으로 가르치는 교과서가 아니다. 그렇다고 야구나 전자 오락과 같은 놀이 도구일 수도 없다. 누군가가 “책상은 책상이다.”라고 하였듯이 문학은 문학일 뿐이다.

문학은 농사를 짓는 도구도, 자동차를 만드는 기구·기계도 아니다. 더욱이 문학이 무기여서는 안된다.

문학은 그 시대의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진실과 꿈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예술이다.

문학은 가르친다기보다 깨우친다. 근대 이후의 문학은 정보를 전달하거나 설명하거나 논증하지 않고 삶의 현실과 꿈을 보여준다. 문학은 삶의 실제 상황과 닮았으면서도 실상 자체는 아닌 꾸며낸 진실이다. 꾸며냈으므로 문학은 환상적으로 우리를 대혹하며 이끌되 그것은 지성적이고, 고상한 환상이므로 헛된 꿈인 백일몽(白日夢)은 아니다.

문학은 진리를 말하는 방식이기는 하나, 그 진리는 개념적인 진리가 아닌 체험되는 진리다. 문학의 진리는 닫힌 진리가 아닌 열린 진리다. 문학이 말하는 바 삶과 인생의 진리는 경직된 결정론적(決定論的) 진리가 아니라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이다. 따라서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 회의(懷疑)나 도전의 목소리를 띤다. 문학의 회의와 물음은 도전과 응전의 자세를 취하되 전투적, 파괴적, 실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서와 지성이 조화된 화해적, 탈목적적(脫目的的), 비실리적(非實利的)인 것이다.

초월적인 세계에서 찾을 수밖에 없음을 깨우친다. 또 김동리(金東里)의 ‘등신불(等身佛)’에서는 인간의 죄와 참회와 구원의 고행상(苦行相)에 접하여 감동 어린 깨우침을 체험하며, 향가 ‘찬기파랑가(讚耆婆郎歌)’에서는 티없이 높고 맑은 인격(人格)의 표상(表象)을 만난다. 정몽주(鄭夢周)와 성삼문(成三問)의 시조에서는 생명과 바꾼 인간의 지절(志節) 정신과 만나며, 김현승(金顯承)의

‘가을의 기도(祈禱)’와 윤동주(尹東柱)의 ‘서시(序詩)’에서는 인간의 고독과 순결 의식을 체험한다.

요컨대 현대 문학은, 실용적인 목적이거나 이념의 선전 도구와 같은 실제적인 이익을 벗어나 있고자 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삶의 위안과 인생의 어떤 계시(啓示)를 주며, 마침내는 종교적 체험과도 유사한 일종의 구원(救援)을 경험하게 하는 언어 예술이다.

2. 주요 문학 장르 개관

(1) 시(詩)의 이해

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은 쉽지 않다. 지금까지 시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내려졌으나 완벽한 정의는 나오지 않았다. 시대에 따라 시에 대한 생각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시 자체도 변모하기 때문이다.

편의상 시는 마음 속에서 이루어진 뜻을 말로 나타낸 것이라는 정의에서 출발해 보자. ‘시언지(詩言志)’라는 이 정의는 동양의 전통적인 시관(詩觀)으로 오랫동안 통용되어 왔다. 먼저 뜻을 보자. 문학을 정의할 때 이미 ‘가치 있는 체험을 내용으로 한다’고 했으므로 시에서의 뜻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표현하지 않고는 못배길 절실한 그 무엇이 여기서의 뜻이라고 하겠다. 이번에는 뜻을 전달하는 ‘말’에 주목해 보자. 문학이 언어 예술이므로 시에서의 말도 제재(題材)에 해당된다. 그러나 시의 경우에 있어서 언어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가 하면 시의 형태도 소설이나 희곡과는 다르다. 짧고 압축되어 있다. 그러나 짧고 압축된 형태의 문학이면 모두 시라고 할 수는 없다. 절제(節制)된 언어의 질서가 어떤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야만 한다. 이처럼 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해명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에 대한 부당한 선입견(先入見)을 버리는 것이 좋다. 시는 아름다워야만 한다면, 고상한 세계를 노래해야만 한다면, 시는 일상 생활에서는 쓸모가 없다든가 하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는 것이 시에 대한 정의(定義)를 내리는 것보다 중요할 수 있다.

(2) 소설(小說)의 이해

소설은 서정시(抒情詩)나 희곡(戲曲)에 비해 매우 늦게 나타난 문학 갈래이지만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갈래이기도 하다. 이것은 소설이 기본적으로 현대적 갈래이며 또 현대 문학의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뜻한다. 그 단적인 예를 일간(日刊) 신문에 다른 갈래와는 달리 소설만이 줄곧 연재되고 있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소설은 현대인의 삶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갈래이며, 독자들은 소설에서 쉽사리 실감(實感)과 즐거움을 느끼거나 교훈을 얻고 있는 것이다.

소설은 꾸며낸 이야기이다. 즉 허구(虛構)의 일종이다. 물론 허구라 해서 모두 소설은 아니다. 진실을 갖지 않은 허구는 허위(虛僞)이다. 소설로서의 허구는 그 나름의 진실은 내포하고 있다. 이를 소설적 진실이라고 한다. 이치에 맞지 않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합리적 생활을 하는 우리가, 꾸며낸 이야기인 소설을 읽고 감동하는 까닭은 바로 이 소설적 진실 때문이다. 그러니까 소설에서의 허구는 단순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있을 법한 일, 사실의 재현(再現) 및 진실의 전달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서술 방법이다.

소설은 주제(主題)·구성(構成)·문체(文體)의 3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구성은 인물(人物)·사건(事件)·배경(背景)의 3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이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3) 수필(隨筆)의 이해

수필은 개성(個性)의 문학이요, 산문(散文)의 문학이며, 무형식(無形式)의 문학이다. 비평 정신(批評精神)의 문학이며, 제재(題材)가 다양한 문학, 심미적(審美的), 철학적(哲學的) 가치의 문학이다.

수필은 개성적인 글이므로 보다 형상적(形象的)이어서 예술적인 표현으로 기울어지지 않을 수 없다. 수사(修辭)는 더욱 비유적이 되고 그만큼 문학적 표현을 찾게 된다. 수필은 내면적으로 파고드는 글이므로 인간적인 흥미가 있다. 허구(虛構)가 아닌 사실을 그리고 있으면서 항상 안으로 잠겨 들어간다. 수필만큼 살아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을 뚜렷하게 드러내 주는 글은 없다.

수필은 일정한 형식이 없는 자유로운 글이지만 그러면서도 가장 알뜰한 통일

이 요구되는 글이다. 수필은 시가 아니면서 시적(詩的)으로 쓸 수 있고, 소설이 아니면서 소설적으로, 논문이 아니면서 다분히 논설적으로 쓸 수도 있다.

수필의 기교는 초월한 무기교(無技巧)의 기교이다. 그리고 인생에 대한 달관은 더욱 이와 같은 정신을 향기롭게 한다. 훌륭한 수필가들은 모두 일관된 인생관 내지 세계관을 지니고 있다. 어떠한 일상적인 일을 소재로 하더라도 거기에 글쓴이의 달관(達觀)이 나타나는 것이 수필이다. 이러한 달관은 사물이나 현상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고 다른 가치로 받아들이게 되며 전혀 새로운 빛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다. 여기에 여유 있는 웃음, 유머가 생긴다. 이것이 수필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수필에는 중수필(重隨筆) 또는 경수필(硬隨筆)이 있는가 하면 경수필(輕隨筆) 또는 연수필(軟隨筆)이 있다. 전자를 에세이(essay) 또는 포멀 에세이(formal essay)라 하고 후자를 미셀러니(miscellany) 또는 인포멀 에세이(informal essay) 부르기도 한다. 미셀러니는 그 내용과 분위기가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개인적인 글이다. 그러나 에세이는 형식적이고 객관적인 글이다.

1. 수필(隨筆)의 이해

(1) 개방(開放)과 무형식(無形式)의 형식

우리가 매일 쓰는 일기(日記), 여행의 체험을 기록한 기행문, 벗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계절의 느낌을 기록한 감상문(感想文) 등의 글도 역시 문학에 속한다. 이들을 묶어서 모두 수필(隨筆)이라고 하는데, 그러고 보면 수필은 우리의 일상 생활과 매우 가까이 있는 것이고 부지런한 사람이면 거의 매일 쓰는 셈이 된다. 이처럼 수필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 문학이다. 시나 소설과는 달리 수필을 쓰는 데는 특별한 재능이 요구되지 않으며 다만 생활에 열심인 사람이면 누구나 수필을 쓸 바탕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흔히 수필은 ‘붓 가는 대로 쓴 글’로 이해되고 있다. 이것은 수필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말을 아무렇게나 쉽게 쓸 수 있는 글썽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붓 가는 대로 쓴 글’의 올바른 의미는 형식의 자유이다. 이 점이 다른 문학 갈래와는 구별되는 수필의 가장 큰 특성이다. 시의 경우 제한된 길이 속에 운율을 갖춘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희곡의 경우는 제약 조건이 더욱 많다. 이에 반해 수필에게 요구되는 형식적 조건은 거의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수필의 형식을 무형식(無形式)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리 규정된 틀이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문학이라는 점에서 수필은 장점을 지니기도 하지만 이 때문에 자칫하면 문학이 아닌 천박한 잡문(雜文)이 되고 말 위험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2) 지성(知性)의 격조(格調)

한 편의 문학 작품은 내용과 형식의 통일물(統一物)이다. 이 때의 통일이란 내용과 형식이 서로 대립되어 있으면서도 유기적 질서를 이루고 있음을 뜻한다. 그런데 수필은 내용을 제약할 형식이 없다. 산문(散文)으로 되어 있다는 것 외에는 형식적 조건이 없는 것이다. 무한정한 형식의 자유로움은 곧 내용의 자유를 뜻하는 것인데, 실제 수필은 그 어떤 제재를 다루어도 무방한 문학이기도 하

다.

어떤 제재, 어떤 내용을 다루어도 무방하지만 그것이 신변잡기(身邊雜記)가 아닌 문학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청되어야 할까. 그것이 곧 지성(知性)이다. 대부분의 훌륭한 수필은 형식의 자유로움과 주제의 심각성 사이에서 긴장감을 획득하고 있는데, 이 주제의 심각성은 곧 격조(格調)높은 지성에서 오는 것이다. 원래 수필은 발생 단계에서부터 지식인의 문학이었다. 시, 소설, 희곡 등이 대중을 상대로 하는 원시(原始)예술에서 나온 것이라면 수필은 학문적인 축적이 있는 후에 비로소 나타난 문학인 것이다. 물론, 수필은 지식인이나 위대한 철학자만이 쓸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인생(人生)을 성실히 살므로써 터득한 깨달음이 바탕이 되어야 사소한 제재(題材)라도 하나의 주제 밑에 응집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수필은 독자에게 천박한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의미있게 사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3) 개성(個性)의 문학

수필은 ‘나’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문학이다. 이 ‘나’는 수필 속에 따로 설정된 ‘나’가 아니고 수필을 쓰는 사람 그 자신이다. 소설에서의 서술자나 서사적 자아(주인공)는 작가가 작품 속에 설정한 존재임에 반해, 수필은 작가가 직접 자신을 작품 속에 노출시킨다. 자기의 내면(內面)을 숨김없이 나타낸다는 점에서 수필은 고백(告白)의 문학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나’가 그냥 평범하기만 하다면 그 수필은 무의미해진다. 문학이 가치 있는 체험을 내용으로 한다고 했으므로 수필에 등장한 ‘나’는 개성(個性)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수필은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게 보고 느끼는 일상 세계(日常世界) 가운데서 투철한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의 자유로운 정신 활동의 산물이다. 실로 미미하고 사소한 일상사가 오로지 개성의 강한 힘으로 커다란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다.

개성의 발현 외에도 수필은 몇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대상에 대한 꾸준한 관찰과 깊은 관조(觀照), 사색과 명상이 뒤따라야 한다. 수필은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일상 세계를 그대로 작품 세계로 삼고 있으므로 그 속에서 가치를 발견해 내야 한다. 둘째, 가치 있는 사상이 육화(肉化)되어 있어야 한다. 자신이 발견한 어떤 교훈적 내용을 독자들에게 선블리 설교(說教)하려 들어서

는 안되며 그것이 제재 속에 녹아들어 있어야 한다. 즉, 독자들에게 교훈을 주되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인생의 가치에 대해 새롭게 눈 뜨게 되는 그런 기쁨을 동반한 것이어야 한다. 셋째, 수필은 예술적 산문이어야 한다. 삶에 대한 진지한 사색의 결과가 예술적인 직관(直觀)을 통해 형상화될때 좋은 수필이 쓰여지는 것이다.

(4) 수필의 갈래적 성격과 종류

수필은 교술(敎述)갈래에 속한다.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현실세계가 그대로 작품 속에 개입되고, 작품 속에서 자아가 자신의 주장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분명 수필은 교술 갈래의 하나이다. 우리가 흔히 수필을 서정적 수필, 서사적 수필, 극적 수필, 교훈적 수필 등으로 나누지만, 그렇다고 수필이 지니고 있는 성격에 따라 각각 서정, 서사, 극 갈래에다 수필을 귀속시킬 수는 없다. 수필이 다루는 제재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재의 성격에 따라 서정적, 서사적, 극적 성격을 띠 뿐이다. 그러니까 예컨대, 수필이 소설의 산문성과 시의 서정성을 차용한다고 해서 독자적인 갈래로서의 수필의 존재가 부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아무리 수필이 서정적 성격을 띠다고 해도 그것은 수필이지 서정시는 아니다. 수필이 다른 문학갈래의 성격을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은 수필의 장점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수필은 보통 중수필(重隨筆, essay)과 경수필(輕隨筆, miscellany)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앞의 것은 정격(定格)수필이라고도 하는데 설명적이면서도 논리적인 질서를 지니고 있고, 따라서 지성적인 분위기를 강하게 풍긴다. 반면에 뒤의 것은 비정격(非定格)수필로서 주관적인 느낌이나 인상을 서술한 수필이기 때문에 주로 감성적인 분위기를 띤다. 따라서, 중수필을 쓰기 위해서는 상당한 학문적인 소양이 요구되고, 경수필을 쓰는 데는 자신의 생활을 개성있게 기록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5) 요점정리

① 수필의 본질

- ① 자유로운 형식 : 어떤 형식, 어떤 방법으로 쓰는 형식에 구애됨이 없다. 그러므로, 수필은 문학 가운데서 가장 자유로운 글이다.
- ② 자유로운(다양한)소재 : 일상 생활 그 자체, 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경험, 인물, 사물, 그리고 생활 주변의 환경 등 무엇이나 수필의 소재가 될 수 있다.
- ③ 작가 자신의 ‘나의 목소리’¹⁾ : ‘나’는 인격을 갖춘 구체적인 필자 그 자신인 ‘나’다. 한 인간이 직접 겪은 일을 그 사람의 소리로 쓴 자유로운 형식의 글이 곧 수필이므로, 수필을 읽을 때는 ‘어떤 개성있는 한 인간이 그의 인격을 더불어 체험한 것’이 무엇인가에 맞추어 읽어야 한다.
- ④ ‘예술을 위한 예술’에 매이지 않음²⁾ : 수필은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가 하면, 설득을 위해서도 그 구실을 다한다. 수필은 문예적 아름다움을 살리되, 그것에 매이지 않아도 좋다.

② 수필의 내용

- ① 일상 생활, 자연 및 사회 현상에 관한 관찰과 생각, 느낌 등.
- ② 독자는 위의 것들에 관한 정보(지식)와 교훈, 정서를 얻는다.
- ③ 수필의 내용에는 감동과 해학(諧謔)이 따른다.³⁾

※ 수필의 정의 : 형식에 매이지 않고 듣고 본 것, 체험한 것, 느낀 것 등을 생각나는 대로 쓰는 산문 형식의 글 또는 그러한 글투의 작품. 사건 체계를 갖지 않으며, 개성적·관조적이며 인간성이 내포되게, 위트·유우머·예지로써도 표현함. 상화(想華). 만필(漫筆). 수필문(隨筆文).

③ 갈래와 그 특색

- ① 수필은 복합적인 문장 양식이다.
- ② 문예적(文藝的)수필 : 독자와 공감을 나누어 가지며 내향적(內向的)⁴⁾이다. 필자 자신이 직접 독자에게 말한다. 서사성(敘事性)을 띤 문예적 수

1) 자기 고백의 문학 : 작가의 개성과 주관적 심성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2) 산문의 문학 : 산문 정신이 투철한 글이다.

3) 웃음의 문학 : 유우머와 위트를 중시한다.

4) 읽을 때 감흥과 기쁨을 주는 것을 말한다.

필은 소설 같은 구성을 가진다.

③ 비문예적(非文藝的)수필 : 외향적(外向的)⁵⁾이다.

㉞ 설명적 수필 : 정보나 지식을 주는 수필.

㉟ 설득하는 수필 : 독자를 타일러 필자의 뜻을 관철시키는 수필.

④ 분위기나 문체에 따른 분류

㉞ 서정적(抒情的)수필 : 정서(情緒)위주의 수필.

㉟ 명상적(瞑想的)수필 : 영적(靈的)인 수필.

㊱ 지적(知的)수필 :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수필. 기지(機智)의 수필.

⑤ 서구(西歐)에서의 분류

㉞ 비정격(非定格) 수필(informal essay)⁶⁾ : 개인의 생활과 주변의 일을 소재로 하는 수필.

㉟ 정격(定格) 수필(formal essay)⁷⁾ : 평론이 될 수 있는 수필.

5) 내면의 심정에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실이나 지식을 지향하는 것을 말한다.

6) 경수필(輕隨筆). 미셀러니(miscellany)

7) 중수필(重隨筆). 에세이(essay)

2. 수필의 감상

수필 감상의 실제

수필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주 쉽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대하려 든다. 쉽게 생각하고 가깝게 느껴지는 만큼 흔하게 여기고, 흔한 만큼 또 대수롭지 않게도 여긴다.

이런 현상은, 일반적인 문장론에서 여러 가지 문장을 작성하는 요령을 이야기할 때, 편지, 일기, 논문 등의 실용적인 글과 함께 수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바꾸어 생각해 보면, 문학의 여러 갈래 중에서 가장 친근한 느낌을 주는, 그래서 가장 가깝게 대할 수 있는 반가운 갈래가 곧 수필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 볼 수도 있다. 어쨌거나 수필도 엄연히 문학에 속하는 한 갈래임에 틀림없는 만큼, 문학으로서의 수필은 독자에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수필도 나름대로의 독특한 미적(美的)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예로 *노천명(盧天命)의 ‘설야 산책(雪夜散策)’을 들 수 있다. 이 수필은 지은이의 마음을 거울처럼 비쳐 주면서, 수필도 시적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음을 완벽하게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영원히 외로운 존재일지도 모른다. 뉘 집인가 불이 환히 켜진 창(窓)안에선 다듬이 소리가 새어 나온다. [중략] 머리에 눈을 하얗게 쓴 채, 고단한 나그네처럼 나는 조용히 내 집 문을 두드렸다. 눈이 내리는 성스러운 밤을 위해 모든 것은 깨끗하고 조용하다. 꽃 한 송이 없는 방 안에 내가 그림자같이 들어옴이 상장(喪章)처럼 슬프구나. 창 밖에선 여전히 눈이 싸르르 싸르르 내리고 있다. 저 적막한 거리거리에 내가 버리고 온 발자국들이 흰 눈으로 덮여 없어질 것을 생각하며 나는 가만히 누웠다. 회색과 분홍빛으로 된 천정을 격해 놓고, 이 밤에 쥐는 나무를 꺾고, 나는 가슴을 짊는다.”

그 어느 시보다도 정갈한 이 글은, 읽는 사람의 마음에 고뇌마저도 아름답게 승화시켜 주는, 지은이의 서정의 물결을 느끼게 해 준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이르러서는 인간적 고뇌를 가슴이 짊어지도록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노천명(盧天命, 1912~1957) : 여류 시인

달 밤

윤 오 영

① 내가 잠시 낙향(落鄕)해서 있었을 때 일

② 어느 날 밤이었다. ①달이 몹시 밝았다. ②서울서 이사 온 옷마을 김군을 찾아갔다. 대문은 깊이 잠겨 있고 주위는 고요했다. 나는 밖에서 혼자 머뭇거리다가 대문을 흔들지 않고 그대로 들어섰다.

③ 맞은편 집 사랑 뒤탈마루엔 ③웬 노인이 한 분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서 달을 보고 있었다. 나는 걸음을 그리로 옮겼다. 그는 내가 가까이 가도 별관심을 보이지 아니했다.

④ “좀 쉬어가겠습니다.”하며 걸터앉았다. 그는 이웃 사람이 아닌 것을 알자,

“아랫 마을서 오셨소?”하고 물었다.

“네. 달이 하도 밝기에…….”

“음! 참 밝소.”허연 수염을 쓰다듬었다. 두 사람은 각각 말이 없었다. 푸른 하늘은 먼 마을에 덮여 있고, 뜰은 달빛에 젖어 있었다. 노인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안으로 통한 문 소리가 나고 얼마 후에 다시 문 소리가 들리더니, 노인은 방에서 상을 들고 나왔다. 소반에는 무청김치 한 그릇, 막걸리 두 사발이 놓여 있었다.

⑤ “마침 잘 됐소, 농주(農酒) 두 사발이 남았더니…….” 하고 권하며, 스스로 한 사발을 쭉 들이켰다. ④나는 그런 큰 사발의 술을 먹어 본 적은 일찌기 없었지만 그 노인이 마시는 바람에 따라 마셔 버렸다.

⑥ 이윽고,

“살펴 가우.”하는 노인의 인사를 들으며 내려왔다. 얼마쯤 내려오다 돌아보니, 노인은 그대로 앉아 있었다.

〈감 상〉

달빛의 밝음, 밤의 고요함, 노인의 정—이 셋이 이 작품의 서정적 분위기와 주제를 결정짓는 요소들이다.

뒤탈마루에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달을 보고 있는 노인, 거기에는 외로움과 추

은함이 있고, 또 은근한 아름다움이 있다. 그 ‘고적인 아름다움’이 달빛 그 자체가 빛은 듯한 정을 이룩했을 때, 그것은 더없이 풍족한 아름다움이 된것이다. 무청김치 한 그릇, 농주(農酒) 두 사발은 그래서 안으로 풍요한 성찬(盛饌)을 마련한 것이다.

구 두

계 용 묵(桂鎔默)

구두 수선(修繕)을 주었더니 뒤축에다가 어지간히는 큰 징을 한 개 박아 놓았다. 보기가 흉해서 빼어 버리라고 하였더니, 그런 징이래야 한동안 신게 되고 무엇이 어찌구 하며, 수다를 피는 소리가 듣기 싫어 그대로 신기는 신었으나, 점잖치 못하게 저벅저벅 그 징이 땅바닥에 부딪치는 금속성 소리가 심히 컷막에 역했다. 더욱이 시멘트 보도의 딱딱한 바닥에 부딪쳐 낼 때의 그 음향(音響)이란 정말 질색이었다. 또그닥또그닥—이건 흡사 사람은 아닌 말발굽 소리다.

어느 날 초어스름이었다. 좀 바쁜 일이 있어 창경원 결담을 끼고 걸어 내려오느라니까, 앞에서 걸어가던 스물 내외의 어떤 한 젊은 여자가 이 이상히 또그닥거리는 구두 소리에 안심이 되지 않는 모양으로, 슬쩍 고개를 돌려 또그닥 소리의 주인공을 물색(物色)하고 나더니, 별안간 걸음이 빨라진다.

그러는 걸 나는 그저 그러는가 보다 하고 내가 걸어야 할 길만 그대로 걷고 있었더니, 얼마쯤 가다가 이 여자는 또 뒤를 한 번 힐끗 돌아다 본다. 그리고 자기와 나와의 거리가 불과 지척(咫尺)사이임을 알고는 빨라지는 걸음이 보통이 아니었다. 뛰다싶은 걸음으로 치맛귀가 웅어하게 내닫는다. 나의 그 또그닥거리는 구두 소리는 분명 자기를 위협(威脅)하느라고 일부터 그렇게 딱딱딱 땅바닥을 박아 내며 걷는 줄로만 아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 여자더러 내 구두 소리는 그건 자연이요, 고의가 아니니 안심하라 고 일러 드릴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어서 가야 할 길을 아니 갈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나는 그 순간 좀더 걸음을 빨리하여 이 여자를 뒤로 떨어뜨림으로써, 공포(恐怖)에의 안심을 주려고 한층 더 걸음에 박차(拍車)를 가했더니, 그럴 게 아니었다. 도리어 이것이 이 여자로 하여금 위협(威脅)이 되는 것이었다.

내 구두 소리가 또그닥또그닥 좀더 재어지자, 이에 호응(呼應)하여 또각또각 굽 높은 뒤축이 어쩔 바를 모르고 걸음과 싸우며, 유난히도 몸을 이터내는 그 분주(奔走)함이란, 있는 마력(馬力)을 다 내보는 동작에 틀림없다. 그리하여 또그닥또그닥, 또각또각 한참 석양(夕陽)노을이 내려비치기 시작하는 인적(人跡) 드문 포도(舖道)위에서 이 두 음향의 속 모르는 싸움은 자못 그 절정에 달

하고 있었다.

나는 이 여자의 뒤를 거의 다 따랐던 것이다. 이삼 보만 더 내어디디면 앞으로 나서게 될 그릴 계제(階梯)였다. 그러나 이 여자 역시 힘을 다하는 걸음이었다. 그 이삼 보라는 것도 그리 용이(容易)히 따라가지 않았다. 한참 내 발부리에도 풍진(風塵)이 일었는데, 거기서 이 여자는 뚫어진 옆 골목으로 살짝 빠져 들어선다. 다행한 일이었다. 한숨이 나간다. 이 여자도 한숨이 나갔을 것이다.

기웃해 보니, 기다랗게 내뚫린 골목으로 이 여자는 횡하니 내닫는다. 이 골목안이 저의 집인지 혹은 나를 피하느라고 빠져 들어갔는지 그것은 알 바 없으나, 나로선 이 여자가 나를 불량배(不良輩)로 영원히 알고 있을 것임이 서글픈 일이다.

〈감상〉

이 수필은, 자신의 구두 발자국 소리가 기이했던 탓으로 어이없게 빚어지게 된 어떤 낮모를 여자와의 긴박감이 넘치는 한 순간을 포착해 쓴 체험담이다. 이러한 작품에서는 극적인 사건의 전개가 곧 작품의 내용이 되므로 문체는 그 사건의 전개에 따라 변화가 많을 수 있고, 읽는 이의 기분을 여러 가지로 변화시키기도 하고, 뜻밖의 결말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콩트나 단편소설을 읽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거리의 악사(樂士)

박 경 리(朴景利)

작년과 금년, 여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일 인상에 남는 것은 거리
의 악사(樂士)다. 전주에 갔을 때, 아코디온을 키고 북을 치면서 악광고를 하고
다니는 풍경에 마음이 끌렸고, 작년 가을 대구에 갔을 때 잡화를 가득 실은 수
레 위에 구식 축음기를 올려 놓고 묵은 유행가 판을 돌리며 길모퉁이로 지나가
는 행상의 모습이 하도 시적(詩的)이어서 작품에서 써먹은 일이 있지만, 역시
작년 여름, 진주에 갔을 때의 일이다. 그때는 새로 착수한 작품을 위해 자료 수
집과 초고(草稿)를 만들기 위해 여행을 떠났었다. 일 없이 갔었으면 참 재미나
고 마음 편한 혼자 여행일테지만 일을 잔뜩 안고 와서, 그것이 제대로 되지 못
하고 하루 하루 날만 잡아 먹는다고 초조히 생각하다가 답답하면 지갑 하나, 손
수건 하나 들고 시장길을 헤매고 낮선 다방에 가서 차를 마시곤 했었다. 그래도
늘 일이 생각 속에 땀돌아 뒀에 쫓기는 듯 휴식이 되지 않는다.

어느 날 아침, 조반도 하기 전에 나는 밀짚모자를 들고 여관 밖으로 나왔다.
서울서 내려간 듯 낡은 합승, 혼자 빌리면 택시가 되는—주차장으로 가서 차 한
대를 빌어 가매뭇으로 가자고 했다. 운전사는 아침 안개도 걷히기 전에 밀짚모
자 든 여자가 가매뭇으로 가자 하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지 좀 떨떠름해 하다
가 차를 내몰았다. 옛날 학교 시절에 몇번 가 본 일이 있는 가매뭇 앞에서 두
시간 후에 나를 데리러 오라 일러 주고, 나는 천천히 가매뭇 옆에 있는 농가길
을 따라 저만큼 보이는 언덕 위에 나란히 두 개 있는 무덤을 향해 걸어갔다. 어
떻게 길을 잘못 들어 가파로운 벼랑을 기어 올라 무덤에 이르렀을 때, 아침 안
개는 다 걷혀지고 가매뭇 너머 넓은 수전 지대와 남강 너머 땃숲이 바라보였다.
그리고 아침 햇빛이 뿌영게, 마치 비눗물처럼 번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우두커니 혼자 앉아서 허겁지겁 달려 온 자기 자신의 변덕을 웃으며, 그
러면서도 작품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얼마동안을 그러고 앉았다가 뒤통수를 치는
듯한 고독감에 나는 쫓기듯 산에서 내려오고 논둑길을 급히 걸어오는데

“장판 사려어—”

외치는 소리에 고개를 드니, 바로 앞에 장판지를 팔아서 짊어진 할머니가 다
시 장판 사려 하고 외친다. 나는 그의 뒤로 바짝 붙어서 따라가다가

“할머니?”

하고 불렀다. 할머니는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을 했다.

“이러고 다니면 장판지가 더러 팔려요?”

“사는 사람이 있으니께, 팔리니께 땡기지.”

“많이 남아요?”

“물밥 사 묵고 땡기믄 남는 것 없지, 친척집에서 잠은 자고...”

노파는 다시 외친다. 집이래야 눈에 띄는 농가가, 박덩굴 올라간 초가지붕이 몇 채도 안 되는데, 뒤따라 가는 내 생각으론 한 장도 팔릴 것 같지가 않다. 그래도 노파는 유유히 목청을 돋구어 장판 사라고 외치다가, 그것도 그만두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연못 속의 금붕어가 어쩔다는 그런 노래였는데 너무 구슬프게 들려 나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다가, 여기도 또한 거리의 악사가 있구나 하고,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예술가인지도 모르겠다는 묘한 생각을 하다가, 그 노파는 웃마을로 가고 나는 가매못 곁에 와서 우두커니 낚시질을 하고 있는 아이들 옆에 서서 구경을 한다. 부평초가 가득히 깔려 있는 호수에 바람이 불어 그 부평초가 나부끼고 연꽃 비슷하기는 하나 아주 작고 노오란 빛깔의 꽃이 흔들린다.

“이게 무슨 꽃이죠?”

하고 물었더니 고기를 낚아 올리던 청년이

“말꽃이라 하지요.”

“말꽃.....”

가련한 꽃이름이 말꽃, 어쩐지 잘못된 것 같아 꽃에 대하여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저거, 선생님.”

하고 누가 뒤에서 부른다. 여기서 나를 부를 사람은 없다. 이십 년 세월이 지나 이제 이 고장은 낯설고 남의 땅만 같고, 그래서 일 생각만 잇는다면, 나는 외로움이 행복스럽게 될 수 있는 기분인데

“저, 선생님.”

나는 하는 수 없이 돌아보았다. 여학생이,

“저, 박 선생님 아니어요?”

아무래도 이상한 일이다. 나를 알 사람이 있을 턱이 없다. 더우기 이런 소년은.

“그렇지만 어떻게 나를?”

“책에서 봤어요. 사진으로요.”

나는 아차! 싶었다. 그리고 나를 알아 주어서 고마운 마음보다 나를 의식하게 하는 번거로움에 짜증스런 마음이 앞섰다. 얼마나 좋은 시간인가. 그 시간을 이 소녀는 찢어 버린 것이다. 나는 이 곳 여학교에 다니느냐고 소녀에게 물었다. 그리고 나도 이 곳 여학교를 옛날에 다녔노라고 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중학을 나와서 고등간호학교에 다녀요.”

하며 소녀는 수줍어서 말했다. 나는 다시 이 마을에 사느냐고 물었다. 소녀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이 호수에 사람이 빠져 죽니?”

“네 가끔, 작년에 할머니가 한 분 자살을 했어요.”

“그럼 저 독에서 떨어져 죽겠구나.”

“글쎄요…….”

“여기서 물에 빠지려면 한참 걸어 들어 가야잖니? 걸어들어 가는 동안 마음이 변할 텐데……그래도 죽는 사람이면 상당히 의지가 강할 거야.”

나는 쓸 데 없는 소리를 하며 으시시 떨었다.

마침 부탁해 놓은 차가 왔기에 소녀와 작별하고 자동차에 올랐다. 가매곳 옆을 지나가면서 나는 어릴 때 상두가를 구슬피 불러서 길편에 선 사람들을 울리던 그 녀석 좋은 사나이와 농악꾼에 유달리도 쟁과리를 잘 치고 춤 잘 추던 사람을 생각하며, 그들이야말로 예술가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거리의 악사—멀리 맑은 공기를 흔들며 노파가 부르던 노래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감 상〉

이 수필은 작자가 새로운 소설 창작의 자료 수집과 초고(草稿)작성을 위해 고향 근처로 갔을 때의 체험을 쓴 것이다. 창작이란 고독한 작업이고, 또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공간이 확보되어야 제대로 되는 법이다. 새로운 영감이 설 새 없이 떠오르고, 새로운 소재도 충분히 준비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창작의 과정이란 고통스럽지 않을 수 없다. 직업적 작가의 창작 과정은 이처럼 특별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작가의 눈에 포착된 장편을 파는 할머니나 상두꾼, 농악꾼은 어떠한가. 이들의 노래는 바로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체험에서 자연스럽게 저절로 우러나오고 흘러나오는 것이다. 장편 사라고 외치다가 곧 구슬픈 노래를 즉흥적으로 불러대는 할머니, 곧 거리의 악사는 생

활과 예술이 일치된 사람들이다. 엉뚱하게 으시시한 생각이나 하면서 특별한 창작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려 애쓰는 작가에 비해, 삶의 현장이 곧 예술의 시간과 공간인 거리의 악사들이야말로 참된 예술가일지도 모른다. 이 작품의 묘미는 바로 직업적 작가인 필자와 거리의 악사와의 선명한 대조에 있는 것이다.

I. 開化期의 文學

① 1890년대~1910년대까지

- 민족문학의 수립, 근대문학으로의 전환
- 언문일치에 가까운 문장
- 자주정신 + 애국·계몽사상 + 신문명에 대한 자각

② 1) 唱歌

- 가사 형식(4·4조)→6·5조, 7·5조, 8·5조로 발전
- 주로 〈독립신문〉에 게재.
- ex) 독립가, 애국가, 권학가, 경부철도가, 한양가 등

2) 新體詩

- 정형적 시형식 탈피→문명개화를 노래
- 구어체 채용
- 개화사상 + 신교육고취 + 남녀평등사상 + 자주독립
- ex) ‘해에게서 소년에게’(최남선), ‘우리 영웅’(이광수) 등

3) 新小說

- 과도기적 소설의 형태
- 언문일치문체의 도입, 묘사중심의 서술시도, 역전적 구성 배경의 현실성과 사실적 인물제시
- 자주독립 + 자유연애 + 신교육권장 + 인습과 미신타파
- ex) 이인직 → 혈의누, 은세계, 모란봉
이해조 → 자유종, 화의혈(개작소설: 심청전-강상련, 춘향전-옥중화, 흥부전-연의각, 별주부전-토의간)
최찬식 → 추월색, 능하도 안국선 → 금수회의록

4) 역사·전기문학

- 국권과 민족 자주권 회복 → 민족주의적 저항
- ex) 장지연 ‘애국부인전’, 신채호 ‘을지문덕전’ ‘이순신전’ 등

5) 참극·신파극

- 창극 → 판소리의 무대화 ex) 춘향가, 심청가
- 신파극 → 산문으로 된 대사를 사용한 연극(근대극에 가까운 형태)
- 신파극 → 〈혁신단〉 ‘육혈포강도’ ‘장한몽’ 등 공연
현대의 세상 풍속과 인정, 비화등을 제재

* 최초의 월간 종합 잡지 〈소년〉(1908~1911), 최남선

Ⅱ. 1910년대의 문학

① 현대문학 모색기

- 계몽주의성 → 근대적 인간상 형상화
- 2인문단시대 → 최남선, 이광수

② 1) 詩

- 자유시의 정립 → 주요한 ‘불놀이’(1919 <창조>)
- 김억 <태서문예신보> → 프랑스, 상징주의시 도입('18)

2) 小說

- 이광수 「무정」 '17

3) 희곡

- 최초의 창작 희곡 → 조중환 ‘병자3인’ ('12)

Ⅲ. 1920년대의 문학

① • 3·1운동의 실패 → i) 민족의 정치적 좌절감

ii) 계급주의 사상 도입

iii) 우울과 패배의 미학 풍조

- 동인지 중심의 문학활동

<창조>'19 → <개벽>'19 → <폐허>'20 → <장미촌>'21 → <백조>'22

김동인 박영희 김억, 염상섭 황석우, 변영로 이상화, 현진건
주요한 김기진 황석우, 오상순 박종화 나도향, 홍사용

- 서구 문예 사조의 도입 → 사실주의 경향의 문학 수립

2) 詩

- 우울하고 절망적인 낭만주의적 경향
- 경향파, KAPF의 결성('25~'35) ≠ 국민문학,
<조선문단>'24, 방인근, 이광수
- { 김소월 → 민요성, 전통적 울조와 정서
 한용운 → 불교적 세계관, 의지와 구원의 표상
- 1926, 시조부흥운동 → <국민문학과> 최남선, 정인보, 이병기
 ex) 김억, 오상순, 황석우, 이상화, 박종화, 김동환 등

2) 小說

- 김동인 → i) 3인칭 단수 ‘그’의 사용, 확연한 시체의 문장 표현
ii) 개화기 계몽주의적 문학과 거부
iii) 문학의 자율성 강조 → 사실주의, 자연주의 확립
iv) 순수문학주장 ≠ 이광수의 문학에 대립
v) ‘배따라기’ ‘감자’ ‘광염소나타’
- 염상섭 → i) 식민지 상황하의 지식인의 고뇌
ii) ‘표본실의 청개구리’ ‘만세전’
- 현진건 → i) 치밀한 구성과 객관적 묘사
ii) ‘빈치’ ‘운수 좋은 날’ ‘술 권하는 사회’
- 나도향 → i) 낭만적 감상주의, 섬세하고 세련된 감각적 표현
ii) ‘뽕’ ‘병어리 삼룡이’
- 최학송 → i) 체험을 바탕으로 하층민의 빈궁을 다룸. 경향파
ii) ‘탈출기’
- 전영택 → i) 사실주의적 인도주의
ii) ‘화수분’
- 주요섭 → i) 신경향파에서 서정적 소설로 전환
ii) ‘사랑손님과 어머니’

3) 민족주의 문학과 프로문학의 대립

- 프로문학 → 김기진, 박영희
- 민족문학 → 〈조선문단〉 ’24, 이광수, 김동인, 염상섭, 박종화
- 절충파 → 〈문예공론〉 ’29, 양주동

Ⅳ. 1930~1945년의 文學

- ㉠ • 위기의식의 팽배 → 파시즘의 대두, 경제공황, 만주사변, 중일전쟁
- 탄압의 가중 → 언론검열, 사상통제(KAPF 해체 ’35)
 - 일제 탄압에 의해 프로문학퇴조, 순수문학 지향
 - 역사소설, 자기고발의 문학, 풍자문학 대두

2) 1) 詩

- 순수 서정시에의 지향과 옹호 → 〈시문학파〉 '30 박용철, 김영랑, 정지용, 신석정
- 모더니즘의 주지적, 기교주의적 경향 → '26이후 주지주의, 초현실주의 등장

cf) (김광균 → 시각적 이미지 중시
장만영

- 인간의 생명과 자연의 모습 → 〈시인부락〉 '36 서정주, 김동리, 유치환, 오장환
- 전원적 목가시와 반도시적 경향 → “전원파”
신석정 ‘그 먼나라를~’
김동명 ‘내 마음은~’
김상용 ‘남으로 창을~’
- 저항의식 → 이육사, 윤동주

* 시문학파=김영랑, 박용철, 정지용 → 순수시의 추구
모더니즘=김광균, 장만영, 이상 → 지성의 표출, 도시문명적 소재
생명파(인생파)=서정주, 유치환 → 인간생명의 본질 추구
청록파(자연파)=박목월, 박두진, 조지훈 → 〈문장〉지 데뷔

전통적 서정의 세계

전원파=신석정, 김동명 김상용 → 전원적 목가적 세계

2) 小說

- 역사소설(민족의식 고취), 가족사소설 등장
ex) 이광수 ‘마의태자’, 김동인 ‘젊은 그들’ ‘운현궁의 봄’
염상섭 ‘삼대’, 채만식 ‘태평천하’
- 농촌 계몽소설 등장 → “브나로드”운동
ex) 이광수 ‘흙’, 심훈 ‘상록수’
이무영 ‘제1과 제1장’, 박영준 ‘모범경찰생’
→ 향토적 농촌소설 ex) 김유정 ‘동백꽃’ ‘봄봄’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 인간의 근원적 삶의 문제제기
ex) 계용묵 ‘백치아다다’, 김동리 ‘무너도’, 정비석 ‘성황당’

- * 이효석 = 자연과 인간의 본능의 순수성
- 김유정 = 사실적, 토속적 유모, 순박한 인간상
- 박화성 = 노동자, 농민의 참상을 사실적으로 묘사 ‘고향없는 사람들’
- 김정환 = 현실 모순에 대항하는 생존양식 추구 ‘사하촌’ ‘모래톱 이야기’
- 김동리 = 토속적 신비주의 ‘무녀도’
- 안수길 = 민족적 비극의 서사적 전개 ‘북간도’
- 유진오 = 지식인의 고뇌와 무력감 ‘김강사와 T교수’
- 채만식 = 지식인 사회의 해학과 풍자 ‘탁류’ ‘치숙’ ‘논 이야기’
- * * 동반작가 → 유진오, 이효석, 이무영, 채만식, 유치진 등

V. 1945~1950년대 文學

- ① • 좌우익의 이념 대립
 - 우리말의 회복 → 사상, 감정의 자유로운 표출
 - 귀향의식 → 정비석 ‘귀향’, 계용묵 ‘별을 켜다’
 - 식민지 의식의 정리 → 채만식 ‘논 이야기’
 - 분단의식 → 염상섭 ‘삼팔선’

VI. 1950년대 文學

- ① • 이데올로기, 경제등의 상처 → 6·25 동란
- ② 1) 詩
 - 전쟁 체험 작가 → 유치환, 구상 ‘적군 묘지 앞에서’
 - 문명 비판 → 김수영 ‘달나라의 장난’, 박인환 ‘목마와 숙녀’
 - 토속적 서정주의 → 서정주, 박재삼, 박남수
 - 사물의 존재론적 탐구 → 김춘수 ‘꽃을 위한 서시’
 - 인간의 근원적 고독과 신을 향한 구도의 자세 → 김현승 ‘가을의 기도’

2) 小說

- 전후의 혼란, 좌절, 갈등→황순원 ‘인간정복’ ‘나무들 비탈에 서다’
장용학 ‘요한시집’
이범선 ‘학마을 사람들’
최인훈 ‘광장’
- 토속적 생활공간을 배경으로 서민적 삶을 노래→오영수 ‘갯마을’
- 피난민의 정착과 분단 현실 극복→이호철 ‘판문점’ ‘닿아지는 살들’

VII. 1960년대 文學

㉠ • 4·19→시민의식

- 언어탐구에 주력
- 인구의 도시집중(산업화)과 농촌의 궁핍화
- 문덕수→내면세계(상상적 이미지) ‘선에 관한 이미지’
- 비판적 현실 인식의 시
 - { 김수영→참여적 시민의식 ‘거대한 뿌리’ ‘풀’
 - { 신동엽→건실한 역사의식 ‘껍데기는 가라’ ‘금강’
- 순수 대 참여문학의 논쟁
 - i) 1963~64 { 순수 : 이형기, 김상일, 원형갑
 - { 참여 : 김병길, 김우중
 - ii) 1968 이후 { 순수 : 선우휘, 이어령, 문덕수
 - { 참여 : 이호철, 김수영, 백낙청

詩 創 作 論

I. 시란 무엇인가?

- ❶ 시란 시인의 사상·감정·체험 등의 내용을 정서적으로 승화시켜 압축된 형식 속에 운율있는 언어로 표현한 예술.

ex) 장미꽃은 아름답다.

→이슬에 젖은 장미꽃의 아름다움.

→햇살에 반짝이며, 사라지는 장미빛 꽃 그늘.

❷ 시 언어의 특징

- 1) 시가 대상이 지닌 사실, 사건 그 자체를 묘사하는데 관심을 갖지 않고(산문영역) 그것에 대한 시인의 반응에 관심을 갖음
- 2) 상상에 의해 제시됨.

시의 언어	과학의 언어
주관적	객관적
함축적	개념적
간접적	직접적
개인적	비개인적

II. 詩想은 어떻게 잡는가?

❶ 詩의 씨앗

1. 시의 씨앗이란—事物을 詩的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일
(inspiration—영감)
2. 빼딱하게 바라보기(낯설게 하기)
 - 사물의 본질을 확실하게 파악→詩的 表現(發想)의 원리
 - ex) 佛 장·꼭또 <뱀>→너무 길다(한 줄의 시)
 - 서정주<화사 花蛇>→꽃대님보다 아름답다.

※ 눈 → 순결을 상징

⇒ 공해로 찌든 눈

구정물 투성이의 눈, 오염된 눈

⇒ 일체의 목적 의식을 배제하고

마음을 無化시키고, 眞空化시켜

사물을 「시인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훈련

② 感情의 당당한 排泄

* Catharsis—변비약을 먹고 후련하게 宿便을 쏟아내 버릴 때의 쾌감

1. 「당당한 배설」, 「당당한 옷벗기」, 「당당한 자기 드러내기」

2. 시를 잘 쓰려면 당당하게 자기를 알몸뚱이로 내 보이고, 당당하게 자기의 내부에 숨어있는 추악한 감정의 찌꺼기들을 쏟아내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 「무조건 솔직하게」

3. 詩的 正義(Poetic Justice) ≒ “아름다운 똥” express

☆ 心理學 → 글을 쓰거나 예술행위를 어린 아이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退行欲求와 관련.

4. 詩想을 잡는다는 것은 명상이나 관조의 시간을 필요하기 보다는 우리들의 일상사를 겪어 나가면서 누구나 느끼는 여러가지 답답함, 짜증스러움, 울화 등이 모두 사상의 원천이 된다.

③ 想像力の 확장(imagination)

1. 빼딱하게 보기 → 당당한 배설 → 사물을 시적으로 관찰 억압된 정서 배설
⇒ 상상력 확장

2. 꿈을 꿀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시간

3. 일체의 현실적 인식을 배제하고 비이성적인 상상속으로 자신을 내어 맡긴다 ➡ 詩心을 키운다.

4. 인류최초의 詩想 = 「게으르고 심심한 생활태도」

—영)Cecil Day Lewis교시학입문

5. 인류 최초의 시인 = 원시 사회의 신체 불구자

☆ 시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상상력의 자유를 오만한 태도로 즐길 수 있어야 하며, 주변의 어떠한 이념적 간섭이나 실생활에서의 처세등에 초연할 수 있어야 한다.

Ⅲ. 素材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① 素材와 主題

1. 관념어의 나열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으며 공감을 불러 일으키지 못함.
2. 주제가 소재의 무더기에 가려서 잘 드러나지 않을 때, 또는 드러나긴 하더라도 상징적으로 암시 되어질때, 시적 감동과 여운이 創出되어지는 것이라면, 이 작품은 실패작에 가깝다.
3. 라이너·마리아·릴케 “시는 체험이다”
▶ 습작기에 쓰는 작품이 대개 공허한 센티멘탈리즘으로 일관되는 것도 직접적인 체험없이 다만 막연하고 추상적인 상상력만을 가지고 시를 쓰기 때문이다.

② 素材의 종류

1. 自然을 소재로 하는 시
→ 자연을 소재로 인생관, 운명관, 도덕관을 함축적으로 표현
ex) 윤동주 「서시」, 김소월 「산유화」
2. 日常的 事件을 소재로 하는 시.
→ 넋두리로 끝나서는 안된다.
ex) 박목월 「가족」
3. 역사적 사실, 또는 인물을 소재로 하는 시
→ 시인의 신념이나 주제의식이 확실해야 함.
ex) 변영로 「가족」
4. 주변의 대상물을 소재로 하는 시
5. 추상적 관념을 소재로 하는 시

Ⅳ. Image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① Image : 머리에 떠오른 것으로서 감각적 성질을 지닌 것. 언어로 만들어진 그림.

② 이미지스트 선언

- ① 일상어를 사용하되 정확한 말을 고르며, 모호한 말이나 장식적인 말을 배척한다.

- ② 새로운 기분의 표현으로서 새로운 리듬을 창조해야 한다.
- ③ 제재의 선택은 자유로와야 한다.
- ④ 명확한 이미지를 제공한다.
- ⑤ 모호하고 불확정한 것이 아니라 견고하고 명확한 시를 쓴다.
- ⑥ 간축된 것만이 시의 본질이다.

③ 종류 : 감각적, 비유적, 상징적 이미지

V. 시에 있어서 역설이란 무엇인가?

① 역설(Paradox)

- ① 표층적 역설 - 무언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 독자들에게 일종의 경이감, 즐거움, 충격을 주려고 함.
ex) 쓰디쓴 즐거움, 달콤한 슬픔, 눈을 감으면 바깥보다 눈부시다,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은 밝아진다.
- ② 심층적 역설 - 모순의 의미를 이상적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
 - i) 존재론적 역설 - 삶의 초월적 진리를 내포한 역설.
→ 신비롭고 새로운 의미 창조의 가능성 내포.
ex) 아아 남은 값지마는 나는 남은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쁨이 됩니다.
 - ii) 시적 역설 - 작품의 구조적 의미가 반영된 역설.
표면적 의미와 정반대되는 의미를 작품에 내면화 시키고,
모순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의미론적 긴장속에서 시적 가치를 창조.
ex) 나 보기가 역겨워/가실 때에는/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Ⅵ.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일반적 구성

3단		4단		5단
서론	—	起	—	[도입 갈등(전개)
본론	—	[承 轉	—	위기 절정
결론	—	結	—	파국(결말)

• 詩의 정형적 구성

- 1) 1단 구성 : a형, aa'형
- 2) 2단 구성 : ab형, aa'b형, abb'형
- 3) 3단 구성 : abc형, abb'c형, aba형, abb'a형
- 4) 4단 구성 : abcd형, abca형

Ⅶ. 어떤 詩作過程이 效果的인가?

① 詩作過程의 여러가지 유형

- 1) 구상→제목붙이기→본문집필
⇒ 시가 쓰고 싶어지는 의도가 생겼을 경우
- 2) 구상→본문집필→제목붙이기
⇒ 구상이 대체로 추상적이고 막연한 감정에 속하는 것일때, 또는 어떤 상징적 사건의 유형에 드는 경우에 채택
- 3) 제목붙이기→구상→본문집필
⇒ 내용에 대해서 미리 구상함이 없이 먼저 멋들어진 제목이 생각나서 버리기 가까운 경우

VIII. 推敲는 어떻게 할 것인가?

❶ 퇴고의 3원칙

- ① 첨가의 원칙
- ② 삭제의 원칙
- ③ 재구성의 원칙

❷ 퇴고의 유의점

- ① 시 전체가 통일성 있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나?
- ② 행과 연이 제대로 갈라져 있는가?
- ③ 시를 소리내어 읽어볼 때 리듬이 유연하게 흐르는가?
- ④ 군더더기나 蛇足이 될만한 부분이 없는가?
- 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주제가 읽는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되는가?
- ⑥ 문법에 맞게 시어가 쓰였는가?
- ⑦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나 시에 쓰여진 소재가 너무 진부한 것이 아닌가?
- ⑧ 너무 난해한 표현, 모호한 표현은 없는가?
- ⑨ 수사법(비유, 상징등)이 적절하게 쓰였는가?
- ⑩ 제목과 내용이 잘 들어 맞는가?

MEMO

❖ 회원 주소록 ❖

회원 번호	성 명	주 소	전 화	비 고
1	성 지 월	양천구 신정3동 671-2	603-8859	고 문
2	김 수 년	용인읍 남리	32-4001	회 장
3	최 영 규	명지대 예·체능대 교학과 이천읍 증포리 설봉중학교	33-9756	부 회 장
4	신 배 섭	이천읍 판고리 90 양정여고	33-7803	사무국장
5	김 학 성	이천읍 증포리 설봉중학교	33-5213	감 사
6	최 종 상	이천읍 창전리 이천문화원	635-2316	
7	김 경 이	이천읍 창전리 150-14	635-1437	
8	서 상 혁	이천읍 창전리 272 이천국교	635-2655	
9	우 현 숙	이천읍 창전5리 419-25	635-2247	
10	장 인 석	성동구 성수동2가 289-169	463-2077	부 회 장
11	서 은 희	대월면 군량1리	32-3106	

MEMO